



관덕정

2018년 6월 27일(통권 제84호)

41967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11(남산동) 전화 : (053)254-0151
팩스 : (053)253-0666 e-mail : daegusaint@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daegusaint.org>



대구대교구

'하느님의 종' 5위를 아십니까?

송 춘 자(마르첼리나)
홍보위원회

금수강산의 아름다움과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스스로 천주님을 찾아 신앙의 뿌리를 내리셨으니 축복받은 우리나라 신자들이다. 우리 신자들은 영광스럽게도 103위의 성인을 모시고 124위의 복자님을 모신 가운데 대구대교구에는 한 분의 성인(성 이윤일 요한)과 20위의 복자님을 모시고 있다.

2014년 8월 16일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 서울 광화문에서 시복되었다. 1997년 한국 천주교회 시복시성 작업 통합추진 결정 후 17년 만에 결실을 맺어 124위가 시복되는 큰 영광을 받았다. 그 당시 우리 대구대교구에서도 1997년 9월에 대구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복시성 대상자 23위를 확정하고 『대구의 순교자들』이란 책자 발간과 연구논문 발표회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그 뒤 2001년에는 대구대교구 순교자 시복시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순교자 23위의 시복시성 운동을 펼쳐갔다. 『신앙의 씨를 뿌린 사도들』이라는 소책자 발간과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로 삼았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회 시복시성위원회에 대상자를 올릴 때는 20위만 올렸고 이분들만 시복되는 영광을 얻었다. 처음 조사되었던 23위중 김흥금, 김장복, 안치룡 세 분은 순교 당시 세례명 미상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보류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2009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조선왕조 치하의 순교자들에 대한 제2차 시복추진을 하기로 하고 2011년 2월부터 대상자 선정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2016년 10월에 교황청 시성성으로부터 '예비 심사를 위한 시복 법정 개정'에 장애 없음' 교령을 접수하였고 2017년 2

월 22일에 예비심사를 위한 시복 법정이 열리게 되었으며 시복시성주교 특별위원회에서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의 시복자료집』을 편찬했다. 여기에 대구대교구의 순교자 3위가 2차 시복대상자로 명단에 올랐다. 2009년 제2차 시복 추진 때는 세례명이 없어도 영성활동이 풍부한 분은 올릴 수 있다는 결정에 따라 1차 때 보류되었던 김흥금, 김장복, 안치룡의 3위와 주교회의의 요청에 따라 이 알로이시오 곤자가와 서태순 베드로 등 5위가 2차 시복대상자에 들어 있다. 우리들은 이분 순교자들의 삶을 알고 우리자신들도 순교자에 따라 영성을 새롭게 하며 시복을 위한 기도도 열심히 드려야 할 것이다. 이제 대구대교구 다섯 분 시복 대상자에 대한 삶을 알아보자.

김흥금과 김장복은 부자지간으로 충청도 홍주 태생이다. 아버지인 김흥금은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장복과 작단 남매를 기르며 흠아비로 살았다. 1801년에 천주교리를 배워 실천하기 시작하였으며 충청도의 연풍 교우촌에서 살다가 신유박해를 피해 경상도 진보 땅으로 피신하였다. 자식들에게도 열심히 교리를 가르쳐 함께 신앙을 실천하였다. 1815년 을해박해 때 진보 머루산(현:경북 영양군 석보면 포산동) 교우촌에 살던 신자들과 함께 체포되어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고 이들 부자가 세례를 받은 것도 이 무렵이었으나 아쉽게도 그들의 세례명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 부자의 사형 판결문을 받아 올리도록 한 것은 1815년 11월 18일이었으며 이어 재조사 명령이 있는 것은 12월 26일이었다. 이때는 김흥금 부자가 옥중에서 병사한 뒤였다. 김흥금의 나이 50세였으며 그 아들 김장복은 18세였다.

안치룡은 충청도 보은 출신으로 윤필영이란 신자에게서 교리를 배워 입교했으며 언제부터인가 청송 노래산(현: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2동) 교우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세례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1815년 주님 부활 대축일 때에 밀고자를 앞세운 박해자의 습격을 받아 최봉한 프란치스코, 서석봉 안드레아, 구성열 바르바라, 고성대 베드로 등과 함께 체포되어 경주 관아로 압송되어 문초를 받았고 다시 대구 감영으로 이송되어 문초를 받았지만 굳게 신앙을 지켰다. 1815년 11월 18일 사형 판결을 받았고 이후 안치룡은 사형집행 전 옥중에서 사망

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50세였다.

이 알로이시오 곤자가는 대구 감영에서 아전으로 지낸 부친에게서 태어났으며 소년 시절에 부친을 여의고 모친 수산나, 여동생 프란치스카, 데레사와 살았다. 그가 16세 때에 가족들과 함께 교리를 배워 입교했다. 그는 동정을 지켰으며 아주 검소한 생활을 했고 묵상과 기도생활 등 고신 극기에 열심이었다. 그는 재산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준 뒤 남은 재산을 가지고 칠곡 한티 교우촌으로 이주해 교우들과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는데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대구로 피신했다가 서울의 포교들이 신자들을 체포하러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양으로 피신했으나 체포되어 서울로 이송되었다. 서울 포도청에서 포졸들에게도 신앙을 권유했다. 그는 포도청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했으나 때는 1868년(무진년)으로 그의 나이 30세였다.

서태순 베드로는 태종 교우로 충청도 청풍에서 서치보의 3남으로 태어났다. 베드로의 가족들은 일찍부터 박해를 피해 다니면서 생활했지만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김 데레사와 혼인하여 충주 장호원(현:충북 음성군 감곡면)에서 살다가 대구로 이주하였다. 1859~1860년 경신박해 때 체포되어 대구 감영으로 압송되어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았고 여섯 달 동안 고통스러운 옥살이에 마음이 약해져 배교하고 석방되었다. 한동안 냉담 상태로 지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회두하여 문경 한실(현:경북 문경시 마성면 상내리) 교우촌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1867년 1월 18일 체포되어 문경 관아로 또다시 상주 진영으로 이송되어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그의 아내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그의 아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석방되었다. 반면에 베드로는 굳게 신앙을 증언하였으며 함께 투옥되었던 김 아우 구스티노, 서유형 바오로, 박 루치아 등과 함께 교수형으로 순교하였다. 1867년 1월 23~24일로 그의 나이 44세였다.

이제 하느님의 종들을 위한 자발적인 기도와 현양 운동에 동참하고 우리들도 그들을 본받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결혼생활에서 그리스도 발견하기

케빈 퍼로타, 루이즈 퍼로타 지음 | 최성욱 신부 옮김

2001년 10월 21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는 교회 역사상 기념비적인 미사가 거행됩니다. 한낱한시에 아내와 남편이 가톨릭교회의 복자로 선포된 것이지요. 복된 루이지와 마리아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심지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신앙의 불꽃을 태우고 이웃에게 신앙을 전한 부부라고 소개됩니다. 부모의 시복 미사에 네 자녀 중 셋이 참석했다지요. 두 아들 사제는 교종과 함께 공동 집전을 했고요. 그 감회가 남달랐을 겁니다.

따끈한 새 책 『결혼 생활에서 그리스도 발견하기』의 저자 케빈과 루이스가 들려준 이 특별한 시복 소식에 몽글한 감동입니다. 결혼이 성소요 축복이며, 아내와 남편 동시에 성화되는 길이 되네요. 인간은 역시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이 새삼 다가옵니다. 갈수록 이기적이고 개인화되는 문화가 만연합니다. 관계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으로 뭐 하러 고통을 겪느냐고 외면해도 된다고 그냥 혼자 즐기며 살라고 부추깁니다. 애완동물은 챙겨도 수고스럽고 힘든 인간관계는 필요 없다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창조되었기에 우리로 사는 존재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그리스도 발견하기』에서 저자는 결혼생활을 잘하는 길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신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6주간 성경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게 도와줍니다. 혼자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둘이나 셋 이상 모여 나눔을 잘 하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같이 산다는 것이 좋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옆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은 순간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면 백인백색의 공동체가 백인백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다름이 축복이 되는 기적을 함께 나누어요.

‘주님, 기쁠 때에는 주님을 찬미하고 괴로울 때에는 주님을 찾으며, 수고할 때에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려울 때에는 주님의 위안을 받게 하소서.’

- 〈혼인 축복 기도문〉 중에서



한국천주교회를 듣고

박 용 희(베로니카)
성지봉사회

관덕정은 순교성지다. 여느 성지와는 달리 대구 시내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도 편리하고 언제든지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활짝 열린 곳이다. 나는 2002년부터 관덕정을 알게 되어 미사참례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면서 지내온 게 벌써 17년 세월을 함께했다. 그동안 순교자들과 지낸 시간이 깊어서인지 조금은 순교자들에 대해 더 가깝게 느끼게 되고 관덕정을 순례하시는 분들께 안내도 도와드리고 했다. 올해는 3월부터 한국천주교회 강좌가 개설되어 관덕정에 오는 분들과 교회사에 관심 있는 교우들이 수요일과 주일에 관장 신부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처음에 강의록을 받았을 때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이걸 언제 다 배우나’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이 앞섰다. 신부님의 강의를 한주 두주 듣게 되면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순교자들의 삶에 대하여 다시 새롭게 알게 되고, 또 모르고 있던 것들도 알게 되어 신부님의 강의를 기다려졌다. 강의를 들을수록 순교자들의 삶에 대한 고통과 그분들의 신앙심에 가슴이 아려오면서 과연 나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앙심을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목숨을 바쳐 순교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드렸다. 8주간의 강의를 어느덧 끝날 즈음 신부님께서 그동안 배운 걸 물어보셨는데 제일 먼저 손을 들어 대답하였더니 신부님께서 『자책』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셨다. 신부님께 강의를 들으면서 상으로 받은 책이라서 집에 와서 그날 저녁 단숨에 읽어보았다.

마치 40여 년 전 학창시절로 되돌아가 선생님께 칭찬받은 아이가 된 기

분이었다. 시간이 짹짹 날 때면 돋보기를 끼고 강의록을 펼쳐보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리곤 했다. 저녁에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여보! 우리가 옛날에 태어나서 천주교를 믿었으면 산골로 도망 다니면서 하느님을 믿고 살았어야 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남편은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지만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남편이랑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기쁜 일이었다.

『자책』은 한 번의 배교를 통해 일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며 삶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성찰과 통회를 통해 자신을 성화하고 하느님께로 돌아간 기록이다. 이 책을 읽고 한순간의 고통 때문에 배교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살았을 배교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나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힘들 때가 많았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 온전히 매달려 조용히 그 힘든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 게 아니라 원망도 하고 다툼도 있고 그런 와중에 또 관덕정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배교자와 순교자 그 사이 어디쯤에 내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신부님께서 강의하신 한국천주교회를 들으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천주교를 믿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신 순교자님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신자들이 순교자들이 지녔던 하느님께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죽음으로 순교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활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희생하며 백색 순교를 할 수 있는 신앙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모든 신자들이 순교 정신을 갖고 살아가길 기도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본당에서도 모두 신부님께서 강의하시는 한국천주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 그레고리오 성가 미사



박대종(디오니시오) 신부

5월 12일(토) 오후 5시 그레고리오 성가 미사가 봉헌되었다. 베네딕토회 박대종(디오니시오) 신부의 주례로 성음악연구회(C.D.C.N.) 회원들이 ‘St. GALL’ 본에 따라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를 함께 봉헌했다. 이날 미사는 강론을 뺀 모든 전례가 그레고리오 성가로 진행되었다. 박대종 신부는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땅에서, 하늘에서’라는 장소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는 분에서 보이지 않는 분으로 살아계심으로써 그전보다 더욱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론했다.



성음악연구회원

■ 6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6월 2일(토)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는 1대리구청 교구장 대리 박석재(가롤로) 신부의 주례로 봉헌됐다. 1대리구 사목국장 최의정(바오로) 신부와 관덕정순교기념관장 이찬우(타대오) 신부가 공동 집전했으며 이날 평생 회원증은 박석재(가롤로) 신부가 수여했다.



■ 영성특강

6월 2일(토) 오후 4시 문화와 영성연구소 김광엽(세례자 요한) 소장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첫 번째 선물로 주신 것은 이 세상이고 그 세상 속에 담아놓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두 번째 선물로 보내셨다는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협력하려고 애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내 삶 속에서 하느님 뜻에 협력하며 산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엽(세례자 요한) 소장

■ 국내성지순례

4월 19일 (목) 해미성지 순례에는 44명이 함께 했고 5월 17일 (목) 신리성지 순례는 42명



해미읍성 진남문



신리성지

이 참여했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소감을 나누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6월 21일(목)에는 43명이 솔피성지를 순례했다.

■ 유럽성지순례

관덕정순교기념관 봉사자를 포함한 20명이 6월 4일(월)부터 13일(수)까지 관장 이찬우(타대오) 신부와 함께 프랑스, 포르투갈의 성모 발현지와 스페인 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3월 23일부터 2018년 6월 22일 기간 안에 후원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평생 회원

故강봉례	故강용중	故강일권	故권숙연	故권오중	故권전두	故김귀자	故김동성
故김만두	故김성호	故김영환	故김정자	故김정희	故김종훈	故김태환	故김현대
故남도백	故문응전	故박금숙	故박대운	故박상균	故박상환	故박종석	故배재수
故백광석	故손봉기	故송상영	故신도운	故신삼식	故신수은	故안미자	故오사용
故우성희	故우태용	故유성달	故윤혜진	故이귀분	故이금연	故이기웅	故이도춘
故이복남	故이성권	故이소개	故이순이	故이인동	故이주원	故이태임	故정세화
故정의남	故전용축	故최종석	故하만수	故한분자	故현능선	故황문이	故황영복
강영선	강영희	강희숙	권기훈	권세일	권영숙	김경수	김성기
김이자	김정수	김종화	김지수	김혜순	김홍화	나선희	남병규
박영춘	박태순	박태임	박해흥	박화수	서정남	송금옥	윤은자
윤재탁	이문기	이인숙	이태수	장인숙	정승자	정월선	정해경
조영학	진순화	최금옥	허외준	허춘자			

※ 관덕정 제83호 14면 평생 회원 성함 허숙희를 허숙희로 바로 잡습니다.

가족 회원

강춘화가족	강희택가족	권미정가족	권오분가족	김민석가족	김민희가족
김복수가족	김성길가족	김영숙가족	김용주가족	김일성가족	김재홍가족
김정강가족	김정현가족	김정환가족	김종운가족	김지수가족	김현준가족
노인자가족	도영희가족	류진춘가족	마운현가족	문양자가족	문정숙가족
박경진가족	박기석가족	박민호가족	박병화가족	박보현가족	박신영가족
박용철가족	박용택가족	박윤희가족	박장원가족	박재석신부가족	박준범가족
박화수가족	박화순가족	배병훈가족	배복경가족	백덕흠가족	백은영가족
백종희가족	서난향가족	서성교가족	손옥자가족	손춘자가족	신수영가족
신정향가족	신혜성가족	안희숙가족	오연숙가족	오현경가족	우종수가족
윤성민가족	윤정순가족	윤현경가족	이강범가족	이상민가족	이성희가족

이수자가족 이시완가족 이정민가족 이춘달가족 이태연가족 이화선가족
 임말례가족 임완순가족 전남숙가족 전순자가족 정계희가족 정명숙가족
 정병선가족 정일상가족 정화숙가족 조경실가족 조기만가족 조상국가족
 조영화가족 조영주가족 주상언가족 최기자가족 홍태숙가족 황수진가족
 황원희가족

일반 회원

김덕순 김분이 김외분 김원혜 김재화 김점수 김정섭 김준범 김지혜 김춘남
 김학열 김효준 박기준 배병일 백명현 서보희 성경훈 성진현 신경숙 신복희
 양시원 양태원 이경애 이윤희 이종섭 임윤자 임판순 전화선 제현희 차이선
 천정숙 최삼기 최순덕

※ 성함이 누락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

관덕정에서는 순교자현양사업과 순교 신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 현양 운동과 각종 유물의 발굴, 조사, 연구, 전시, 보관하기 위한 노력에 후원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방법

-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 053)254-0151번이나 0159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성함과 세례명, 본당과 주소지,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방문하셔도 됩니다!
- 관덕정순교기념관을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평생회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서류가 필요치 않으며, 명함판 사진(없으시다면 얼굴이 잘 나온 일반 사진도 가능) 1매를 준비 해 오시면 됩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원이 되주세요!



■ 회원님께서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후원회원들을 위한 생미사와 세상을 떠난 평생회원들을 위한 위령미사가 함께 봉헌됩니다. 망자가 되신 분을 평생회원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이외에 평일미사에 위령미사를 3대 봉헌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께 순교자 현양 및 신심운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덕정순교기념관의 소식이 담긴 회보를 3개월마다 보내드립니다. 순교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연말 세금공제를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금 납입방법

- 납부계좌 : 대구은행 006-10-011249 (예금주: 대구관덕정순교기념관)
 - ※ 회비를 송금해 주시는 분들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송금 후 꼭 사무실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자동이체 : 거래하시는 은행에 거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저희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 ※ **자동이체 신청 후에도 사무실로 꼭 연락주십시오.**
 - ※ 자동이체 신청시 일반회원 : 월 2,000원
 - 가족회원 : 월 5,000원

■ 후원회비

- 일반회원 : 연 20,000원
- 가족회원 : 연 50,000원
- 평생회원 : 연회비 없이 일백만원 이상을 기탁

- 관덕정 미사 안내 -

- 화요일 : 오전 10시 • 수요일 : 오후 3시
- 목요일 : 오전 10시 • 금요일 : 오후 3시
- 토요일 : 오후 5시(주일 미사)
- ※ 첫째 주 토요일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